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 변인*1

Ego-Identity Formation of College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김 선 애

Kim, Sun Ae

연 진 영

Yon, Jin Young

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ari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formation of ego-identity. Two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02 male and 274 female selected from 12 universities in Seoul.

Two major findings were; First, there was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aring and the ego-identity of college students. Second, among socio-demographic variables(sex, age, socio-economic status), age was the only significant variable in the formation of ego-identity.

I. 연구문제의 제기

Erikson의 자아 이론은 현대 자아 이론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성격 발달 8단계 이론중 다섯째 단계에서 여러가지로 분리되어 있던 개인의 자아가 그 근본을 찾고, 하나로 통합되어져 일관된 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을 체제화한 것이 Erikson의 자아정체

감 이론이다.

Erikson의 전생애 발달 이론은 각 단계마다 자아정체감의 갈등과 위기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선명하게 지각되는 시기가 바로 청년기이다. Erikson을 비롯한 많은 심리학자들이 정체감 성취가 청년이 직면하는 발달과업이라는데에 의견을 같이 한다. (Becker, 1964; Erikson, 1963; Lloyd, 1985; Marcia & Friedman, 1970),

* 1 본 논문은 첫번째 연구자의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임.

청년기에 정체감 확립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심리적, 생리적, 성적, 인지적 변화와 새롭고 다양한 지적, 사회적, 직업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에게 있어서 자아정체감이 직업적, 종교적, 이념적 관여가 가능한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역할 탐색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후의 안정된 성인기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아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자아정체감이 독립변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와 종속변인으로 다루어진 경우로 분리되어 이루어져 왔다. 자아정체감이 독립변인으로 다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는 자아정체감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심리적 기능들과의 상관을 다루고 있다(윤 봉숙, 1984; 허귀선, 1984; Cross & Allen, 1970; Marcia, 1966; Marcia & Friedman, 1970; Marcia, 1967; Podd, 1972; Waterman & Waterman, 197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변인을 규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아정체감을 종속 변인으로 하여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계가 있는 결정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 자아정체감 형성의 결정변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연령, 성별, 가정환경 변인 등이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채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부모의 민주적, 친애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순화, 1983; Becker, 1964; Jordan, 1970). 그러나, 국내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드문 실정이며, 그 대상을 청년기로 삼은 연구가 없음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 규명이 요구된다.

연령이 독립변인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은 연령에 따라 증가한다는 Erikson의 이론이 지배적이지만(서 봉연, 1975; Dignan, 1965; Waterman, 1982), 자아정체감과 연령 단계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들(심 계진, 1985; 윤 봉숙, 1984; Howard, 1960; La Voie, 1976)과 시간적 역행 현상을 보고한 연구들(김 회영, 1986; 신태수, 1986)도 있으므로, 이런 결과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가장 의견의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성별변인의 문제이다. 자아정체감 척도에 따라, 문화 차이에 따라 자아정체감의 성별간의 차이 유무가 일관성 없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어느 성이 더 높은 정체감 수준을 나타내는가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성별 변인이 과연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비록 심 계진(1985)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일연구를 통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연구 대상이 국민학생과 중학생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다른 연령층에게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그 대상을 청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으로 선정하여, 과연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요구되어지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고, 둘째,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성별 및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셋째, 위의 변인들(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연령, 성별,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중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고찰

A. 자아정체감의 발달

1. 자아정체감의 정의

Erikson(1968)은 자아정체감이란 생애 초기에, 그가 의존하던 사람에 대한 계속되는 동일시의 총체라고 표현하여 자아정체감을 동일시 이상의 것으로 끌어 올렸다. 그가 말한 자아정체감은 자기의 연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불변성이요, 개인의 통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이다.

Erikson의 이론을 종합해 보면 정체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그는 정체감을 한 개인이 관여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귀속감 또는 일치성을 의미하는 심리·사회적 정체감과 개인이 집단 내에서도 타인과는 다른 독립된 고유한 존재로서 갖게 되는 정체감인 개별적 정체감으로 구분하였다(Erikson, 1956; Erikson, 1959). 개별적 정체감은 다시 어떠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는 자기 동일

성과 자기 연속성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는 개인적 정체감과, 자기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을 의미하는 자아정체감으로 세분되어진다.

자아정체감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Erikson의 정의에 근거하지만, 자아정체감을 정의함에 있어 일관성과 연속성의 측면을 강조한 연구자들(김 성태, 1981; Block, 1961; Mussen, Conger, & Kagan, 1984)도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되어 가는 자기 참조상의 복합체로서 자아정체감을 정의하기도 한다(박 아청, 1988; Dignan, 1965). 또한 Marcia(1967)는 관여와 위기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자아정체 수준을 4수준(정체감 혼미, 유실, 유예, 정체감 확립)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rikson의 자아정체감 개념을 중심으로 자아정체감을 개인이 자신의 신념, 가치, 역할에서 자각하는 안정성과 통일성, 독특성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연속성과 동질성, 또한 타인과 독립된 고유한 존재로서의 자기 존재 의식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려는 일련의 노력의 집합체로 파악했다. 이 정의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서 봉연의 자아정체감 척도의 하위 영역 특성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2.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위기

전정신적 체제를 하나의 고도로 체제화된, 그러나 발달의 어느 단계에서도 방향과 연속성을 갖는 일관된 정체감으로 지속해 나가려는 능력을 길러 나가는 과정인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은 유아가 자신을 그 주위의 사람이나 사물들과는 구별되는 개인으로 인식

하게 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며, 이 시기의 모자 관계의 경험에서 오는 일관성과 동질성으로부터 신뢰감이 형성, 발달됨으로 이것이 정체감의 원시적 핵을 이루게 된다.

둘째, 청년기에 이르러 이전의 동일시의 효용성이 없어지는 데에서 부터 진정한 정체감 형성이 시작된다. 즉 청년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심적 참조체계로 간직해 오던 이전의 동일시들이 그 유용성을 상실하게 될때, 누적되어 온 동일시들 중 수용된 동일시와, 이에 새로 획득된 동일시들이 융화되어지면서, 자아체계에 집적되어 자아정체감의 핵을 이루게 됨으로 자아정체감이 새로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청년기에는 심리, 생리, 성적, 인지적, 사회적, 직업적 요구에 의해 많은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의 관여에 대한 것이 문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Mussen, Conger & Kagan, 1984), 자아정체감 확립은 청년이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발달과업이 되고, 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하나의 부산물로서 청년들은 정체감 위기를 겪게 된다.

Erikson(1968)은 정체감 위기가 생기는 이유로 첫째, 직업 선택, 둘째, 이념 세계관의 정립, 셋째, 배우자 선택과 성적 적응을 위한 성역할 및 성적 태도에 관한 문제들을 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아정체감 형성은 청년기에 갑자기 시작되는 것도 청년기의 종료와 더불어 끝나는 것도 아닌, 개인과 그 사회에 의식되지 않은 채 계속되는 일생동안의 발달인 것이다(Douvan & Adelson 1966; Erikson, 1959; Murray, 1964). 더우기, 현대 젊은이들이 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Douvan & Adelson 1966; Hauser, 1976;

Marcia, 1967; Waterman, 1975). 정체감 확립의 각 개념인 정체감 혼미가 위기로 인식되어 오지만, 이 위기는 전 생애 발달 과정 중 극히 정상스러운 것으로, 더 나은 상태를 향한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으로 사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 위기를 겪으며, 일관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중에 있는 청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 연구 대상으로 하여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B.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변인들

본 절에서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또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이나 청년이 자신의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부모의 행동과 민주적인 양육 방식이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여러 연구가 있다(오 경옥, 1986; Becker, 1964; Cross & Allen, 1970; Douvan & Adelson, 1966; Jordan, 1971; Matteson, 1977).

또한 유아기의 사회적 신뢰감이 형성되는 조건인 자녀에 대한 어머니 반응의 일관성, 지속성, 동일감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자아정체감을 제공하고(Erikson, 1963), 일관된 양육 태도가 청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김 순화, 1983; Erikson, 1968; Pietz, 1968).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들을 고찰해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 순화, 1983; 오 경옥, 1986; Becker, 1964; Cross & Allen, 1970; Douvan & Adelson, 1969; Erikson, 1963; Jordan, 1971; Pietz, 1968; Sears, 1965). 특히 민주적인 가정 환경과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 형성의 요인이 되어지고, 부모의 양육 태도가 전체적일 때 가장 정체감 발달이 낫다는 것이 공통적인 연구 결과이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아주 미비하며, 그나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유예기간을 겪고 있는 대학생으로 선정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규명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연 령

사춘기 이후 청년기 동안 연령 증가에 따라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지고 안정되어가는 경향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서 봉

연, 1975; Dignan, 1965; Waterman, 1982; Waterman, Geary & Waterman, 1974).

반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에 따른 유의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심 계진, 1985; 윤 봉숙, 1984; Howard, 1960; La Voie, 1976), 자아정체감의 시간적 역행 현상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김 회영, 1986; 서 봉연, 1975; 신 태수, 1986).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히 국내 연구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역행 현상은 초기 청소년기와 고등학교 시기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로 인해 야기되는 발달 양상의 변화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들이 연령과 더불어 자아정체감이 발달한다는 Erikson의 이론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연령층을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선정하여,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 보고자 한다.

3. 성 별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성차에 관한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먼저 성차가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특히 성적 정체감 영역에서의 성차를 보고하고 있다(Matteson, 1977; Schenkel & Marcia, 1972; Waterman & Navid, 1977).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자아정체감의 성별 차이를 말했다(김 순화, 1983; 김 회영, 1986; 심 계진, 1985; 윤 봉숙, 1984; 정 인숙, 1979; 한 상철, 1986).

성차를 보고한 연구 중에는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성취 압력이나 역할 기대 등이 남학생에게

더 크게 주어짐으로 남학생의 정체감 형성이 방해 받기 때문에 여학생의 자아정체감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김 희영, 1986; 윤 봉숙, 1984)와, 이와는 반대로 여성은 생리적, 심리적인 성숙에로의 참여가 과제로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직업이나 종교, 정치적이념등의 요인에서 자아정체감의 성취가 늦어져 고교 이상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아정체감이 높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서 봉연, 1975; 이 경숙, 1973).

이상의 연구들과는 달리 자아정체감 발달에 성차가 없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Pomerantz, 1979; Oshse & Plug, 1986; Waterman, 1982). 그 대표적인 학자인 Waterman(1982)은 자아정체감의 성차에 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하여 몇 개의 특별한 하위 영역에서 성차가 발견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아정체감 발달 자체에는 성차가 유의하지 않다고 결론지으며, 다른 정체감 수준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영향의 작용일 뿐 다른 발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Oshse와 Plug(1986)도 비교 문화적 조사 방법을 써서 Erikson의 인성 발달의 타당도를 검증한 연구에서 성차의 원인은 문화적 차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과연 자아정체감이 영향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한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자 한다.

4.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개인의 자아정

체감 발달이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신 태수, 1986; 심 계전, 1985).

반면, 김 유진등은 한 개인을 둘러싼 환경 변인 중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중요한 예언 변인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는 배제할 수 없으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부모가 갖는 속성으로서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주어지는 변인이므로 이것이 자녀의 행동에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유진, 김 태연, 1979).

이 중 신 태수(1986)의 연구는 사회 계층을 수입 정도에 의거한 생활 수준만으로 분류하였고,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자아정체감 형성과 관계된다는 연구(심 계전, 1985)는 그 연구 대상이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기 청소년 시기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자립하는 것을 발달 과제로 삼고 있는 대학생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아버지의 직업과 부·모의 학력 수준과 가정의 수입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가 설 설 정

상술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변인들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가설 2: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의미있게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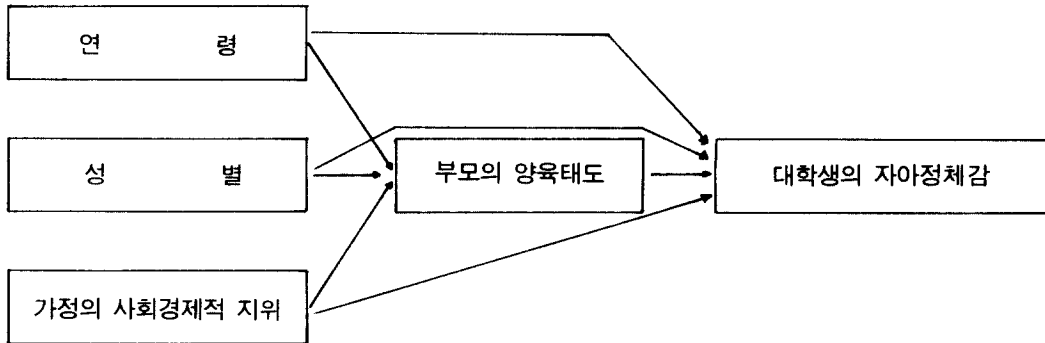
가설 3: 남자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여

자 대학생보다 의미있게 높다.

가설 4 :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보다 의미있게

높다.

위와 같은 가설을 규명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III-1〉 연구 모형

IV. 연구방법 및 절차

A. 연구 대상

1. 모집단

본 연구의 모집단은 청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 3, 4학년생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을 대학생으로 국한시킨 이유는 첫째, 대학생을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유예받고 있는 집단으로 보아, 이 유예 기간 동안 사회적인 독립, 적절한 성역할의 습득, 인생관의 확립, 직업선택 및 이념 체계의 확립과 같은 문제들을 통해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 연구가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기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년 후기로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2. 표본 추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청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 3, 4학년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4년제 대학 중 8개의 남녀 공학 대학과 4개의 여자 대학에서 총 576명 (남학생 302명, 여학생 276명)을 표집하였다.

B. 연구 도구

1. 자아정체감의 측정

Dignan(1965)은 자아정체감의 구성요소를 자기 존재 의식, 독특성, 자기수용, 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대인관계 등으로 분류하여 7가지의 하위 영역을 가진 자아정체감 척도를 제작하였는데, 이를 서 봉연(1975)이 한국 학생에게 맞게 번안하여 문항 150개 중 $r=.30$ 이상 되는 것과, 선택지별 반응분포가 각 7% 이상씩 비교적 고루 분포된 문항 62개를 선택하고, 2개

의 문항을 수정 추가 한 후, 자기 주장이라는 하위 영역을 하나 더 만들어 8개의 하위 영역과 총 64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아정체감 척도를 본 연구에서의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본 검사의 문항동질성을 검정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통해 산출한 Cronbach α 계수는 각 영역 별 .60에서 .77이었다.

각각의 하위 영역들은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의 Likert 척도로 평정되어 득점 범위는 각 하위 척도마다 8점에서 32점이 되고,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8개 하위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자아정체감 점수를 산출하였다.

2. 양육 태도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정 원식의 표준화된 가정 환경 진단 검사지의 124문항 중에서 자율-타율, 친애-거부에 속하는 28문항을 택하여 예비 조사를 거쳐 적절하지 못한 2문항을 제외한 26 문항으로 된 질문지(자율-타율, 12문항 : 친애-거부, 14문항)를 제작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자기 보고식 검사로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검사의 채점은 가정 환경 진단 검사의 실시 요강에 준하였다. 득점 분포는 자율-타율이 0에서 12점, 친애-거부가 0에서 14점이 된다.

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수입 정도와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또한 아버지의 직업을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한 결과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4개의 변인을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변인으로 삼았다.

이 SES 변인은 Eigenvalue가 2.59로서 전체의 6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 조 사 절 차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1회의 예비 조사와 1회의 본 조사로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예비 조사는 1989년 5월 16일에서 19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실시하였고, 예비 조사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 질문지를 작성한 후, 각 학교의 교묘의 도움을 받아 1989년 5월 29일에서 6월 14일까지 약 2주에 걸쳐 강의 시간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D. 자 료 분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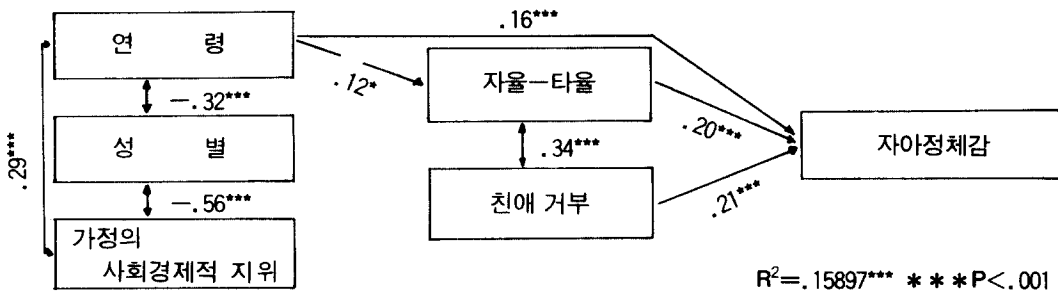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 T-검증, 변량분석, 그리고 경로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 처리는 SPSS/P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전술한 조사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 조사결과를 타선행연구 결과와 함께 비교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의 일반적인 경향 파악을 위해 먼저 본 연구의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자율-타율적인 양육태도와 친애-거부적인 양육태도 간에는 $r=.34$ (Pearson 적률 상관계수)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고, 각 변인과 자아정체감간에는 $r=. -.10$ ($P<.01$)에서 $r=.30$ (P

<.001)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위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의 연령, 성별,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자아정체감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각의 변인들을 통제하여 자아정체감과 관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그림 V-1〉 자아정체감 점수의 경로 모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들(Becker, 1964; Jordan, 1971; 김 순화, 1983; 오 경옥, 1986)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가설은 긍정되었다. 〈그림 V-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의 전체 설명력이 16%로,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다. 자율-타율은 경로계수가 .21로, 친애-거부는 .20으로 각각 $P < .001$ 수준에서 자아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고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 수록, 또한 친애적일 수록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8개 하위 영역 중 자기 주장(.20, $P < .001$), 대인 역할 기대(.18, $P < .001$), 목표 지향성(.13, $P < .01$), 자기 수용(.10, $P < .05$), 자기 존재 의식(.08, $P < .05$)의 5개 영역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 수

A. 가설별 연구 결과 및 해석

가설 1 :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있다.

목 자녀가 획득하는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애-거부는 자기 주장(.12, $P < .01$), 대인 관계(.14, $P < .001$), 대인 역할 기대(.25, $P < .001$), 목표 지향성(.17, $P < .001$), 자기 수용(.13, $P < .01$), 자기 존재(.12, $P < .01$)의 6개 영역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판명되어,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친애적인 가정 분위기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지나친 부모의 통제나 규제가 자아정체감에 부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김 회영, 1986; La Voie, 1976; Matteson, 1977). 그러므로,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태도와 친애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자율-타율과 친애-거부

두 변인을 축으로 하는 정 원식의 양육태도 모형(민주적, 전체적, 방임적, 과보호적)을 채택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 4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별 8개 변인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 분석을 실시하고, 변량 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가 나타난 집단들 사후 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하여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 4개 집단과 자아정체감의 8개 하위영역 중 안정성과 독특성을 제외한 6개 영역에서 $P < .05$ 수준의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 집단과 비민주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판명되었다. 그러므로 4개 집단을 민주 집단과 비민주 집단으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화 하여 Type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만들어 내고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V-1〉 자아정체감 점수와 독립변인과의 경로분석 결과

	R ²	TYPE	SES	연령	성별
자아정체감	.13884***	.30***	N. S	.17***	N. S

* $P < .05$ ** $P < .01$ *** $P < .001$

종속 변인이 독립 변인에 의해 설명된 전체 설명력은 위의 〈표 V-1〉에서 볼 수 있듯이 14%에 해당된다. 이것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Type은 경로 계수가 .30으로서, 이는 $P < .001$ 에서 의미있는 수치이다. 즉,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가설 2 :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의미있게 높다.

위의 〈그림 V-1〉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이 증가할 수록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 변인은 $P < .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갖고, 자아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매개 변인으로 하여 연령은 자아정체감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증가와 더불어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선행 연구(서 봉연 : 1975 : Waterman, 198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청소년기의 시적 역행 현상(김 회영, 1986 : 신 태수, 1986)이 연령에 따른 전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단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말 문제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임을 규명하는 결과이다. 하위 영역별 분석 결과, 연령 변인은 대인관계(.12, $P < .05$), 대인 역할 기대(.11, $P < .05$), 목표지향성(.13, $P < .01$), 자기존재의식(.11, $P < .05$)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율-타율의 선행 변인으로도 작용하여, 안정성과 독특성을 제외한 6개 영역에 간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각각 .12, $P < .05$). 즉, 연령이 증가할 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는 좀 더 자율적이 되고, 그로 인하여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촉진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가설은 지지되었다.

가설 3 : 남자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여자 대학생보다 의미있게 높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외 논문에서 이 성차 변인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국내 논문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성차를 보고하

고 있었다(정 인숙, 1979 ; 김 순화, 1983 ; 윤 봉숙, 1984 ; 한 상철, 198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 변인이 자아정체감과 일차적 관계($r = .30, P < .001$)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으나, 타변인(부모의 양육태도, 연령,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을 통제한 이후에는 이러한 관계가 사라져, 자아정체감과 성별 변인과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못했다. 타변인의 통제 후 성별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가 사라진 까닭은 성별 변인과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연령과의 상관관계의 영향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위 영역별에서도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성별과 안정성 평균치의 차이가 의미 없다고 한 선행 연구의 결과(오 경옥 : 1986)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타변인들을 통제한 결과 자아정체감에 성별 변인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가설 4 :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대학생의 자아정체감보다 의미있게 높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자아정체감간의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그림 V-1), 하위 영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기 존재 의식(.11, $P < .01$)과 자기 주장(-.09, $P < .05$)과 대인 역할 기대(-.10, $P < .05$) 영역이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안정성, 독특성, 자기 존재의식에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 연구(심 계전, 1985)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록 자녀의 자기 존재 의식이 높았고, 자기 주장과 대인 역할 기

대 영역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임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 계전(1985)의 연구 보고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심 계전(1985)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록, 자기 주장, 대인 관계, 대인 역할 기대, 목표 지향성, 자기 수용 영역의 점수가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 존재 의식 영역에서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록 그 점수가 높았으나, 자기 주장과 대인 역할 기대 영역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주장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인식하고, 타인에게 이를 표명할 수 있는 태도와 경향성을 의미함으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 경우 부모의 가치 이념이 그대로 자신의 가치관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으며(Marcia, 1964),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 중의 하나인 부모와 가족으로부터의 심리 사회적 분리와 독립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부모나 그 외의 연장 세대와의 동일시를 비판·음미하고 스스로 자아개념과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자기 주장 영역과 대인 역할 기대 영역에서의 발달이 낮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부모가 갖는 속성이며,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주어지는 변인이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영향이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미치는 않는다고 주장한 선행 연구(김 유진, 김 태연, 1979)와 같이 자아정체감 점수와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VI.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Erikson에 의해 개념화된 자아의 전생애적 발달 이론인 자아정체감과 그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하여 4개의 가설을 설정하고, 대학생들 연구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 몇 가지의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친애적일 수록, 또한 자율적일 수록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촉진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일 때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촉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오 경옥, 1986 : Douvan & Adelson, 1970; Jordan, 1971; Matteson, 1977)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고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성별,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중 연령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자아정체감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자율-타율의 선행 변인으로 작용하여 간접적으로도 자아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춘기 이후 청년기 동안 연령 증가에 따라 자아정체 수준이 높아지고 안정되어간다는 선행 연구들(서 봉연, 1975 : Dignan, 1965; Waterman & Waterman, 1971)과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연령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심 계전, 1985 : 윤 봉숙, 1984)와 연령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시적 역행 현상을 보고한 선행 연구(김 회

영, 1986)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연령과 자아정체감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 결과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제반 문제로 인한 일시적 하향 현상들을 반영한 것이지 자아정체감이 연령에 따른 전생애적 발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성별 변인은 자아정체감과 일차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남자의 자아정체 수준이 여자의 자아정체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 변인들을 통제한 결과, 이러한 일차적인 관계들이 사라져 남녀간의 자아정체 수준의 의미있는 차이를 밝히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에 있어서 성차가 없다고 주장하는 선행 연구들(La Voie, 1976; Oshes & Plug, 1986; Waterman, 1982)의 연구 결과를 확인한 셈이나,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연령과의 성별의 상관관계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군복무라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실정으로 인해 남자 대학생들의 연령이 여대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대생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남자 대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여자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고등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자아정체 수준이 일차적인 관계에서는 높았으나, 이 변인들을 통제한 후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성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 변인은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록 자아정체 수준이 높다는 연구(신 태수, 1986 : 심 계전,

1985)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요구되는 대학생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대학생 자녀에게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과 본 연구의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대상 연령층의 광범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청년 후기에 해당하는 대학 3, 4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점은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의의인 동시에 제한점이 된다. 연령층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과 연령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의 변화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연령층을 광범위하게 선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연령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발달 경향을 밝히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중고교 시기부터 성인기까지의 자아정체감의 발달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리하여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비일관된 결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으나 정확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척도와 방법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의 측정을 자녀의 자기 보고식 응답법을 이용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응답할 때, 기억의 오류나 왜곡, 의식적인 감정표현등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실제적인 부모 자녀 관계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관찰이나 면접등의 방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앞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좀 더 정교하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많이 행해질 것을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성태(1981). 발달 심리학, 서울:법문사
- 김순화(1983). 부모의 자녀 행동 통제양식의 지각과 자아정체 수준과의 관계.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김태연·김유진(1979).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3집
- 김희영(1986).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 연구. 연대 석사학위 논문
- 박아청(1987). 청년과 아이덴티티, 서울:배영사
- 박아청(1988). 아이덴티티론. 교육과학사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연구. 경북대 박사 학위 논문
- 신태수(1986). 성인기의 자아정체감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연구. 연대 박사 학위 논문
- 심계전(1985). 초기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일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 오경옥(1986).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

- 아정체감과 관계 연구. 원광대 석사 학위 논문
- 윤봉숙(1984).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적응력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 이경숙(1973). 대학생의 자아정체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
- 전혜경(1986). 고등학생의 제 배경 요인이 자아정체감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여대 석사 학위 논문
- 정인숙(1979). 청년기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 한상철(1986).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아 아이덴티티의 발달 과정. 계명대 석사 학위논문
- 허귀선(1984). 대학생의 자아정체 수준과 성격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석사 학위 논문
- Becker, W. C. (1964). The sense of Identity: Measurement and examination of correlates. Doctorial Dissertation, Northwestern University.
- Block, J. (1961). Ego identity, role variabil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5(5), 392-397.
- Cross, J. H., & Allen, J. G. (1970). Ego identity status,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4, 288-295.
- Dignan, M. H.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 476-483.
- Douvan, E., & Adelson, J. (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Wiley.
- (1969). The self and identity. In D. Rogers, Issues in Adolescent Psychology, 166-172. NY:Appleton-Century-Crofts.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 56-121.
-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Psychological Issues, 1(1), 1-171.
- (1963). Child and Society(2nd ed.). New York:Norton.
-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Norton.
- Hauser, S. T. (1976). Self-Image Complexity and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 161-178.
- Howard, L. P. (1960). Identity conflicts in adolescent girls. Smith college Studies in Social work, 31, 1-121.
- Jordan, D. (1970). Parental antecedents of ego identity form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 La Voie, J. C. (1976). Ego identity formation in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 371-385.
- Lloyd, M. A. (1985). Adolescence, Harper & Row, Publishers.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 identity status.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1967). Ego Identity Status: Relationship to change in Self-Esteem, "general Maladjustment," and Authoritarianism. Journal of Psychology, 35, 118-123.
- Marcia, J. E., & Friedman, M. L. (1970). Ego Identity Status in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38, 149-263.
- Matteson, D. R. (1977). Exploration and Commitment: Sex Differences and methodological problems in the use of identity status categor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6, 353-374.
- Murray, J. B. (1964). The Identity Image of the College Student. Psychological Reports, 14, 267-271.
- Mussen, D. H., Conger, J. J., & Kagan, J. (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6th ed.). NY:Harper & Row, Publishers.
- Oshse, R., & Plug, C. (1986). Cross-Cultural Investigation of the validity of Erikson's theory of Personality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240-1252.
- Pietz, K. R. (1968). Parent perception and Socia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165-171.
- Podd, M. H. (1972). Ego Identity Status and Mora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evelopmental constructs. Developmental Psychology, 6, 497-507.
- Pomerantz, S. C. (1979). Sex difference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lf-esteem, physical self-satisfaction and identity in predicting adolescent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51-61.
- Schenkel, S., & Marcia, J. E. (1972). Attitudes toward Premarital Intercourse in determining Ego Identity Status in Colleg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3, 472-482.
- Sears, P. S. (1965). Child-rearing factors related to playing of sex-typed roles. Staff of the Laboratory of Human Development, Harvard University
- Waterman, A. S., Waterman, C. K. (1972). The relationship between Freshman Ego Identity Status and Subsequent academic behavior: A test of the predictive validity of Marcia's categorization system for identity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6(1), 179.
- Waterman, A. S., Geary, P. S., & Waterman, C. K. (1974). A longitudinal study of changes in ego identity status from the freshman to the senior year at college. Developmental Psychology, 10, 387-392.
- Waterman, C. K. (1975). Fathers and sons: A Study of ego identity across two genera-

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 331-338.

Waterman, A. S., & Navid, J. S. (1977). Sex differences in the resolution of the identity cri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6, 337-342.

Waterman, A. S.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358.